

노인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식습관, 식품 기호도·섭취빈도 및 급식서비스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정현영¹⁾ · 이해영^{2)*} · 양일선¹⁾ · 채인숙³⁾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¹⁾, 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²⁾,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³⁾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9%이며, 2030년에는 22.6%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차원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 및 대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사업의 확대와 함께 노인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적절한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가노인 대상의 급식프로그램으로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서비스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 대상 급식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서비스 수혜노인 각각 55명, 44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식품 기호도·섭취빈도 및 현재의 급식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수혜 노인의 식생활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급식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식습관 조사에 있어서는 경로식당의 경우 조사대상 노인들의 72.2%는 평소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27.8%의 노인은 하루 2끼 이하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아침식사 여부(74.1%), 규칙적인 식사(70.4%), 적당한 식사량(74.1%), 여유있는 식사(68.5%), 즐거운 식사(85.2%), 식사 후 충분한 휴식(83.3%) 등에 대한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평소 식욕이 좋지 않음(40.7%), 편식(46.3%), 기름진 음식 섭취(51.0%) 등의 식습관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노인들(14.9%)에 대한 음주습관 관리가 요구되었다. 식사배달 서비스의 수혜노인의 경우, 조사대상 노인들의 70.0%는 평소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27.5%의 노인은 하루 2끼 이하의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노인들 대부분은 아침식사 여부(87.5%), 규칙적인 식사(82.5%), 적당한 식사량(90.0%), 여유있는 식사(80.0%), 식사 후 충분한 휴식(87.5%) 등에 대한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평소 식욕이 좋음(60.0%), 편식(62.5%), 기름진 음식 섭취(47.5%) 등의 식습관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 기호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식품군에서의 기호도가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반면, 실제 섭취빈도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식사배달서비스 수혜노인 모두 주식으로 하는 곡류를 제외하면, 단백질 급원식품 및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경로식당 급식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음식의 간이 잘 맞다」, 「배식하는 사람이 친절하다」, 「배식하는 시간이 적당하다」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3.9),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3.7~3.8 정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식사배달서비스의 경우 「배달하는 사람이 친절하다」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4.4), 그 다음으로 「배달하는 시간이 적당하다」(4.2), 「음식이 먹고 싶게 모양을 갖춰 담겨져 있다」(4.0) 순이었다. 반면 「음식의 양이 적당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3.0(보통)」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현재 주 2회 실시되는 식사배달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수혜자의 요구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재가노인들이 현재 제공되는 급식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식품에 대한 기호도 또한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식습관 일부와 식품 섭취빈도 실태에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노인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제 노인들의 식습관과 식품 섭취빈도를 고려한 질적인 식단의 제공이 요구되어진다.

* 담당자: 이해영
* Tel : 033-730-0492
* Fax : 033-730-0403
* E-mail: hy1317@sangji.ac.kr